

## '분노의 포도'는 영어만 가는데...

박 건 옥

(대전전매일신문 이사·논설실장)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이 연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하다. 위헌 결정 파문의 최대 피해자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공주 지역의 주민들이다. 그들의 상실감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정부 방침만을 철썩 같이 믿었던 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던 말인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져야 하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인근에 대토용 담보대출까지 받았지만 이것마저 위헌 후폭풍으로 제값을 못해 파산지경에 빠졌다. 연기군민들이 꽃상여와 트랙터를 앞세우고 가두행진을 벌이면서 절규하는 모습은 존 스타인벡의 소설 '분노의 포도'(1939년 발간)를 연상케 한다.

## 연기농민, 유랑민의 심정

"...도로변과 도랑둑에는 이주자들로 넘쳤다. ...국도변의 빈민 캠프, 굶주림에 대한 공포, 저녁을 굶은 아이들, 이런 것들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마치 침입자들을 쫓

아내려는 듯이 마을사람들은 곡괭이로, 사무원과 점원들은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 나섰다. 그들은 유랑민들이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작가 스타인벡은 1930년대 미국을 휩쓴 대공황의 참상을 그렇게 묘사했다. 그는 20세기 저항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으로 1940년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농민들이 혹독한 공황의 후유증으로 인해 경작지를 잃고 새로운 이주지로 떠났지만 그곳 역시 그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와 희망의 땅이 아니었다. 기아와 질병, 그리고 자본의 착취만이 그들을 괴롭혔다.

오늘날 연기군민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1930년대 미국 농민들의 아픔과 일맥상통하는 구석이 많다. 비록 행정수도 입지 예정지역 주민들이라는 점에선 당시 미국 상황과 다르다고 할 수는 있으나, 행정수도가 무산될 경우 연기군민들의 앞날은 1930년대 미국농민이 겪었던 형극의 길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해 준다. 고향을 떠나지도 못하고 빚더미에 눌러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비참한 '유랑민'의 심정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일부 중앙언론이나 수도권 민심이 야속하기만 하다. 충청인들이 신행정수도 건설 지속 추진을 촉구하면서 헬서를 쓰거나 삭발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실상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그들의 가슴 속에 '분노의 포도'만이 주렁주렁 열리게 만들었는가. 충청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명확하다.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정치적인 논리에 매몰된 나머지 '관습헌법'이라는 구시대적인 해괴

한 법리를 동원, 수도권의 기득권 보호에 앞장섰고, 한나라당 역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의 다수세력이라면 결국 특정지역주의에 매달리더니 자신의 종전 입장을 뒤집은 모순 투성이 집단이라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 또한 오늘의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적어도 지역감정이라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간 영·호남의 지역갈등도 모자라 수도권 대 비수도권 싸움의 새로운 불씨를 정치권이 앞장서서 지피는 형국이 아닌지 걱정스럽기 그지 없다.

## 문제 꼬일수록 원론부터 풀어야

갈기갈기 찢긴 마음의 상처는 어찌란 말인가. 이젠 그 분기탱천(憤氣撐天)한 민심이 연기, 공주지역은 물론 충청권을 휩쓸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비상시국회의를 비롯해 충청권 선출직, 사회단체가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를 강화,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이유를 곱씹어 볼 때다. 행정수도 대신 기껏해야 부처 몇 개 옮기는 행정특별시나 행정타운 및 기업도시로 충청인의 마음을 돌리려 한다면 크나 큰 오산이다. 그건 결국 민심호동에 불과한 사탕발림이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의 명분은 수도권집중 완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지 않았던가. 문제가 꼬일수록 원론에서부터 풀어 가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요량이었던 정부·여당이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통과 주

역이었던 한나라당 역시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의 단초를 찾는 게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화급을 다투는 조치로는 주민 피해 최소화 역점을 두고 행정수도 예정지 2000여만평의 토지에 대해선 정부가 신속하게 매입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기필코 이뤄져야 한다.

'그들의 눈 속에는 끓어오르는 격노의 불꽃'이 담겨 있으며, 그들의 영혼 속에는 '분노의 포도가 가득해서 심하게 익어간다'는 스타인벡의 표현처럼 인간이 격노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를 간과한 채 정쟁에 날을 지새우고 있다.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분노의 포도가 더 익어가기 전에 대한 마련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무슨 기(氣)싸움이 그리 대단한가.